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김태현 · 이삼식 · 김동희**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차별출산력 분석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족유형(가구구성)을 포함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부인의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한 경우 가장 적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족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유배우 상태가 빠르게 감소하고, 1세대나 독신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는 앞으로의 출산수준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규모가 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중에 근무할 경우,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출산수준이 낮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1980년에 가장 컸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출산수준이 높은 농촌인구의 급감,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간 차이의 감소,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감소 등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혼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였으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수가 많은 집단의 구성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 그 간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와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면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한 1980년 이후 빠른 출산력의 감소원인을 이해하고 출산력의 장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단어: 차별출산력, 기혼여성,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출생아수

* 이 연구는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태태 및 출산력 차이”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재정지원을 받은 두 기관과 기초자료의 협조를 받은 통계청에 감사한다.

** 김태현(교신저자), 이삼식, 김동희는 각각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 연구팀장, 통계청 과장이며, 연락처는 thkim@knue.ac.kr, lss@kihasa.re.kr, dhkim@nso.go.kr 이다.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출산력 감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경 6.0명에서 1983년 출산력의 대체수준인 2.1명으로 낮아졌으며,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1.16명으로 세계에서 출산력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수는 1970년 100만 명을 초과하였던 것이 약 30년이 지난 2004년에는 그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47만 6천명으로 급감하였다(통계청, 2005a).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은 강한 소자녀 선호와 만혼 및 미혼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자녀양육의 어려움, 여성의 취업증가,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고 있다(김태현 외, 2005a). 여성의 초혼연령은 1970년대 초 20대 초에서 2004년에 27.5세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미혼 및 독신의 증가로 인해 출산 기회가 상실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조혼인율은 1980년 10.6에서 2004년에 6.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통계청, 2005a).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은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향후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태현, 1993; 이삼식 외 2004).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기준으로 2050년의 인구를 추계하면 총인구규모는 2005년 인구(48,294천명)보다 약 6백만명 감소하고, 65세 이상인구는 총인구의 37.3%로 노인부양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인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이삼식 외, 2004; 통계청, 2005b; 김태현 외, 2005b).

복합적 사회시스템에서 인구변화로 인해 향후 발생될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인구규모나 구조에서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치유나 회복은 인구특성상 다른 사회현상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차별출산력 분석을 위하여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족유형(가구구성)을 포함하였다. 연령별 출산수준의 차이와 변화의 영향을 통계한다면 모든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산수준의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초혼연령은 유배우 상태로 진입하는 시기를 결

정해주고, 혼인상태는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가족유형의 변화는 자녀의 양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기혼여성의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출산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활동참가로 양육의 어려움이 있고, 직업의 차이에 따라 소득과 자녀관의 차이가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구조에 따라 평균출생아수가 달라지므로 2000년 전국 기혼여성의 연령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출생아수를 표준화하여 특성별 출산수준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주거환경의 변화도 자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끝으로 위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차별출산력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나, 출생아수는 1995년에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10년 간격에 맞추기 위하여 1980년, 1990년 및 2000년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차별출산력: 인구학적 차별출산력

1. 연령별 출생아수

기혼여성의 출생아수(CEB: children ever born)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기혼여성의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 구분 | 여성 연령 | | | | | | | 총합 | 연령 표준화 |
|------|-------|-------|-------|-------|-------|-------|-------|------|--------|
| | 15-19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 |
| 1980 | 0.46 | 0.94 | 1.78 | 2.69 | 3.40 | 3.94 | 4.21 | 2.85 | 3.22 |
| 1990 | 0.32 | 0.70 | 1.28 | 1.90 | 2.35 | 2.81 | 3.35 | 2.13 | 2.33 |
| 2000 | 0.52 | 0.70 | 1.11 | 1.71 | 1.92 | 2.00 | 2.31 | 1.81 | 1.81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가임기 기혼여성 전체(15~49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1980년 2.85명에서 1990년 2.13명, 2000년 1.8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0년 기혼부인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출생아수의 감소도 동일한 유형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비표준화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 기혼여성인구의 구조를 2000년도에 맞추어 표준화하여 연령구조의 차이로 나타나는 출생아수의 차이를 제거한 것이다. 표준화 평균출생아수의 감소가 더 빠르다는 것은 실제 출생아수의 감소속도가 빠르는데, 연령구조의 변화로 추정자료의 감소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연령별 출생아수를 보면, 출생아수가 매우 적은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 20~24세 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0.9명에서 1990년 0.7명으로 감소한 후 유지되고 있다. 25~29세 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1.78명에서 2000년 1.1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30~34세의 경우 동 기간 동안 2.69명에서 1.71명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35~39세 여성의 출생아수는 약 1.5명,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2명 감소하였다. 완결출산력(completed fertility)으로 볼 수 있는 45~49세 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4.21명에서 1990년 3.35명, 2000년 2.31명으로 10년마다 약 1명씩 감소하였다.

2. 초혼연령별 출생아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초혼연령은 1980년과 1990년 조사에만 포함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들 연도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출산이 어느 정도 완료된 30대 후반 이상의 연령층에서 출생아수를 비교하여 보면,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1990년에 35~39세 부인의 출생아수는 초혼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3.06명을 출산한 반면, 30대초에 혼인한 경우에는 1.46명의 자녀만을 출산하였다. 동일한 연령층에 속한 이들 두 집단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무려 1.5명이나 되었다. 혼인과 출산이 집중되어 있는 25~29세에 혼인한 여성과 30~34세에 혼인한 여성간의 비교에서는 1980년에 0.9명 차이가 났고, 1990년에는 0.6명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참조). 출산이 완료되는 시기인 45~49세에서도 두 시점간의 출생아수의 차이는 모두 약 0.7명으로 나타났다. 혼인연령의 차이가 출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혼연령이 20~24세와 25~29세 사이에서도 동일하였다. 혼인연령 차이는 출산기간 차이에 영향을 주어, 출산력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표 2〉 기혼여성의 현연령 및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 연도 및 현재연령 | 초혼연령 | | | |
|-------------|--------|-------|-------|-------|
| | 20세 미만 | 20-24 | 25-29 | 30-34 |
| 1990년 35-39 | 3.06 | 2.56 | 2.09 | 1.46 |
| 40-44 | 3.62 | 2.99 | 2.46 | 1.84 |
| 45-49 | 4.06 | 3.55 | 2.84 | 2.18 |
| 1980년 35-39 | 3.97 | 3.37 | 2.58 | 1.69 |
| 40-44 | 4.28 | 3.83 | 3.00 | 2.32 |
| 45-49 | 4.39 | 4.01 | 3.30 | 2.61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3. 혼인상태별 출생아수

기혼여성이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출산율 감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출한 혼인상태별 출생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혼인상태를 배우자가 있으며 현재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유배우동거)와 배우자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유배우비동거), 이혼 및 사별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3〉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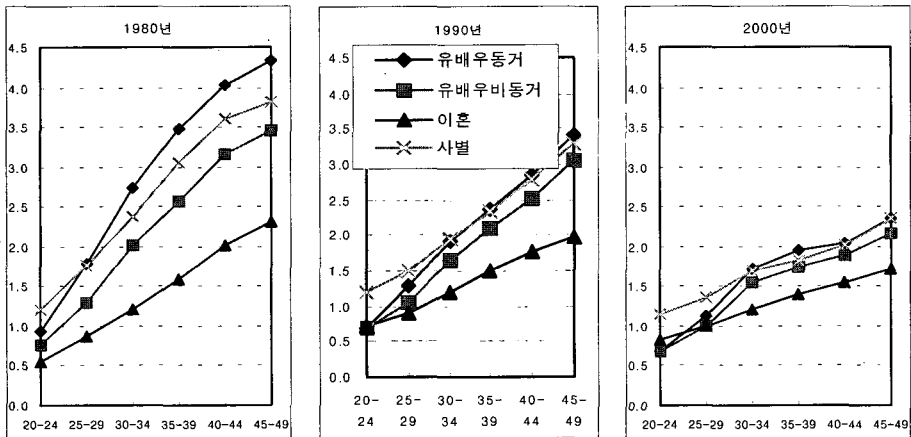
| 구 분 | 혼인상태 | | | | | 차이 | | | | |
|-----------|------|-------|--------|------|------|-------|--------|-------|--------|--------|
| | 전국 | 기혼 동거 | 기혼 비동거 | 이혼 | 사별 | 이혼 동거 | 이혼 비동거 | 사별 동거 | 사별 비동거 | 비동거 동거 |
| [연령 비표준화] | | | | | | | | | | |
| 1980 | 2.85 | 2.85 | 1.78 | 1.62 | 3.45 | -1.23 | -0.16 | 0.61 | 1.67 | -1.07 |
| 1990 | 2.13 | 2.11 | 2.10 | 1.54 | 2.84 | -0.57 | -0.56 | 0.73 | 0.74 | -0.01 |
| 2000 | 1.81 | 1.84 | 1.78 | 1.48 | 2.13 | -0.36 | -0.30 | 0.30 | 0.35 | -0.05 |
| [연령 표준화] | | | | | | | | | | |
| 1980 | 3.22 | 3.30 | 2.51 | 1.60 | 2.94 | -1.69 | -0.91 | -0.36 | 0.42 | -0.78 |
| 1990 | 2.33 | 2.36 | 2.08 | 1.48 | 2.37 | -0.88 | -0.60 | 0.01 | 0.29 | -0.28 |
| 2000 | 1.81 | 1.84 | 1.67 | 1.38 | 1.85 | -0.47 | -0.29 | 0.00 | 0.17 | -0.17 |

주: '차이'가 맞지 않는 것은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각 연도).

혼인상태별 출생아수는 사별인 경우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배우동거, 유배우비동거, 이혼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동거와 유배우비동거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아주 미세하나, 다른 범주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컸다. 사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출생아수를 보이고 있는 유배우동거 집단과 이혼집단간의 차이는 1980년에 1명 이상이었으며, 최근 2000년에도 0.4명의 차이가 있다. 2000년 전국 기혼여성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 작업한 결과의 경향은 표준화 전과 유사하지만 출산수준면에서는 혼인상태 범주간의 차이가 더 커졌으며, 혼인상태별 차이의 변화는 매우 뚜렷하였다. 사별의 경우 출생아수가 가장 높았으나 2000년 기혼 여성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할 경우 1980년 때에는 기혼동거의 경우에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1990년 이후에는 기혼동거와 사별의 경우 유사하였고, 기혼 비동거나 이혼의 경우와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이것은 기혼동거가 출산율 향상에 영향을 주고 이혼이 증가할 경우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혼인상태별 출생아수를 비교하여 보면(<그림 1> 참조), 전체적인 패턴과 유사하였다. 1980년의 경우 15-24세의 낮은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층에서 유배우동거, 사별, 유배우비동거, 이혼 순으로 출생아수가 많았다. 30세 미만 사별의 경우 동일 연령층의 다른 혼인상태보다 많은 출생아수를 가진 반면, 연령 증가와 함께 유배우 동거 부인의 출생아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과 다른 유형과의 차이는 크며, 연령 증가와 함께 출생아수의 차이도 증가하고 있어 출산 중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혼인상태별 연령별 평균출생아수

이러한 양상은 1990년에도 유사하였다. 차이점으로는 30~34세 연령층부터 사별과 유배우동거부인간의 출생아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유배우동거부인의 경우에도 30~34세 연령층에서 대체적으로 출산을 중단하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혼과 다른 범주간의 출생아수 차이도 줄어들었으며, 연령증가와 함께 상승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30대에서 단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2000년과 1990년간의 차이는 모든 유형의 혼인상태에서 출산수준이 낮아졌으며, 30~34세 연령층을 기준으로 유배우동거, 유배우비동거, 사별의 출생아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의 출생아수는 여전히 다른 범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혼으로 인한 출산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4. 가족유형별 출생아수

<표 4>에서 2세대(부모+미혼자녀)와 3세대(노부모+부모+미혼자녀)에 한정하여 출생아수를 비교하였다. 연도별로 두 유형의 출생아수 차이는 아주 미세하나, 일관성 있게 2세대보다 3세대 가구에서 더 많았다. 2000년 기준으로 표준화한 결과, 두 유형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오히려 더 커졌다. 3세대가구 여성의 평균출생아수가 2세대에 비해 많으며,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다만,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차이가 좁혀졌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저출산현상이 보편화되어 가구유형간 출생아수의 차이도 점차 감소하지만 3세대 가구의 출생아수가 2세대 가구보다 4~5% 정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망을 강화시켜 출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4> 가구 유형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 구 분 | 세대유형 | | 차이 |
|-----------|------|------|---------|
| | 2세대 | 3세대 | 3세대-2세대 |
| [연령 비표준화] | | | |
| 1980 | 2.99 | 3.02 | 0.03 |
| 1990 | 2.24 | 2.35 | 0.11 |
| 2000 | 1.93 | 1.98 | 0.05 |
| [연령 표준화] | | | |
| 1980 | 3.26 | 3.41 | 0.16 |
| 1990 | 2.39 | 2.54 | 0.15 |
| 2000 | 1.91 | 1.99 | 0.08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Ⅲ. 차별출산력: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1. 지역별 출생아수

도시와 농촌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농촌지역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980년 3.33명에서 2000년 2.01명으로 약 1.3명이 감소하였다. 도시 부인의 경우에는 동 기간 2.53명에서 1.77명으로 약 0.8명이 감소하였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1980년 0.8명에서 2000년 0.2명으로 약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구조를 2000년 전국을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00년 도시와 농촌간의 출생아수 차이가 0.23명이었으며, 1980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차이는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농촌부인이 도시부인의 출산유형을 따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기혼여성의 거주지별 평균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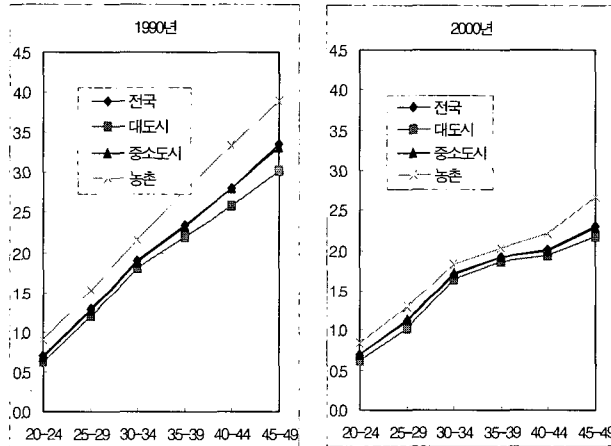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 전국 | 도시 | 농촌 | 차이(도시-농촌) |
|-----------|------|------|------|-----------|
| [연령 비표준화] | | | | |
| 1980 | 2.85 | 2.53 | 3.33 | -0.80 |
| 1990 | 2.13 | 2.00 | 2.62 | -0.62 |
| 2000 | 1.81 | 1.77 | 2.01 | -0.24 |
| [연령 표준화] | | | | |
| 1980 | 3.22 | 2.97 | 3.58 | -0.61 |
| 1990 | 2.33 | 2.21 | 2.74 | -0.53 |
| 2000 | 1.81 | 1.77 | 2.01 | -0.23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1980년과 1990년에 도시와 농촌간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차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전에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이러한 경향은

줄어들었다. 완결출산율로 볼 수 있는 45~49세 부인의 출생아수의 도시-농촌 간 차이는 1980년 0.6명, 1990년 0.8명에서 2000년 0.5명으로 감소하였다. 농촌의 가임인구는 도시 지역에 비해 아주 적으나, 출산력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및 김태현 외, 2005: 111 참조).



〈그림 2〉 기혼여성의 거주지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 교육수준별 출생아수

대학교 이상 고학력층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2000년 1.52명인 반면, 고등학교 학력의 기혼여성은 1.76명, 중학교 이하 저학력층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2.18명으로 나타났다. 이 경향은 과거에도 동일하였다(<표 6> 참조). 그러나 학력계층간 출생아수 차이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중학 이하와 대학이상 학력계층간에 출생아수 차이는 1980년 1.19명에서 2000년 0.6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 이상과 고등학교 학력계층간 차이는 1980년 0.11명에서 2000년 0.24명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기혼여성의 교육정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 구 분 | 전체 | 학력수준 | | | 차이 | |
|-----------|------|-------|------|-------|---------|-------|
| | | 중학 이하 | 고등학교 | 대학 이상 | 대학-중학이하 | 대학-고등 |
| [연령 비표준화] | | | | | | |
| 1980 | 2.85 | 3.06 | 1.98 | 1.87 | -1.19 | -0.11 |
| 1990 | 2.13 | 2.58 | 1.71 | 1.53 | -1.05 | -0.17 |
| 2000 | 1.81 | 2.18 | 1.76 | 1.52 | -0.66 | -0.24 |
| [연령 표준화] | | | | | | |
| 1980 | 3.22 | 3.34 | 2.65 | 2.37 | -0.97 | -0.28 |
| 1990 | 2.33 | 2.53 | 2.08 | 1.89 | -0.64 | -0.19 |
| 2000 | 1.81 | 1.98 | 1.80 | 1.64 | -0.34 | -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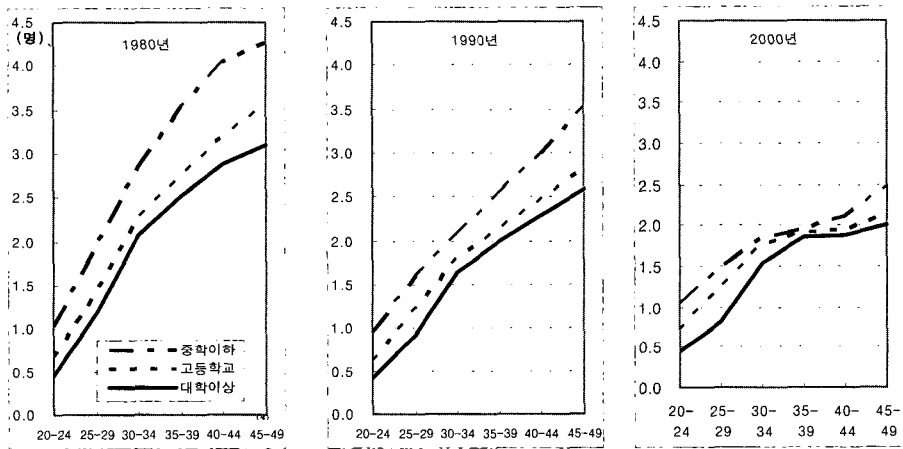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2000년 기혼여성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결과, 교육수준별 출산 수준의 차이는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대학이상과 고등학교 학력계층간의 차이는 비표준화 결과에서는 1980년 이후 차이가 커졌으나 표준화 후에는 점차 감소하였다. 대학이상과 중학 이하에서 출생아수 차이의 감소도 아주 뚜렷하였다.

완결출산율에 해당하는 45~49세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모든 학력에서 예외 없이 감소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중졸 이하 부인의 경우 1980년 4.26명에서 1990년 3.51명, 2000년 2.47명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들의 출생아수도 1980년 3.56명에서 2000년 2.13명으로 감소하였다. 대학 이상 고학력 부인의 출생아수도 동 기간 동안 3.10명에서 2.01명으로 감소하였다. 학력간 완결출산력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상과 중학이하 부인간의 차이는 1980년 1명 수준에서 2000년 0.5명 정도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이상 학력계층간의 차이는 미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산이 집중된 두 연령층 즉, 25~29세와 30~34세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1980년에 0.9명 그리고 1990년에 약 0.5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에 두 연령층간 출생아수의 차이는 중학교 이하 저학력층에서 약 0.4명, 고등학교의 경우 약 0.5명인 반면, 대학교 이상 고학력층의 경우에는 약 0.7명으로 20~24세 연령층의 출생아수의 2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즉, 대학 이상 고학력층으로서 출산이 한창 집중된 25~29세에서 출

산수준이 낮고 대신 30~3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고학력 여성이 초혼연령 상승 등으로 인하여 출산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기혼여성의 교육정도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별 출생아수

(1) 경제활동상태별 출생아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2004년 약 50% 수준으로 높아졌다(통계청, 2005b). 기존의 많은 연구들(박경숙·김영혜, 2003; Atoh, 1998; Brewster, et al, 2000; Engelhardt, et al, 2004 등)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는 자녀 출산을 여성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높임으로써 결국 저출산을 유도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와 출생아수 변동추이의 관계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표 7〉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 구 분 | 전 체 | 경제활동 | 비경제활동 | 차이 |
|-----------|------|------|-------|-------|
| [연령 비표준화] | | | | |
| 1980 | 2.85 | 3.39 | 2.54 | 0.85 |
| 1990 | 2.13 | 2.43 | 2.00 | 0.43 |
| 2000 | 1.81 | 1.86 | 1.78 | 0.07 |
| [연령 표준화] | | | | |
| 1980 | 3.22 | 3.43 | 3.08 | 0.35 |
| 1990 | 2.33 | 2.42 | 2.27 | 0.15 |
| 2000 | 1.81 | 1.78 | 1.82 | -0.04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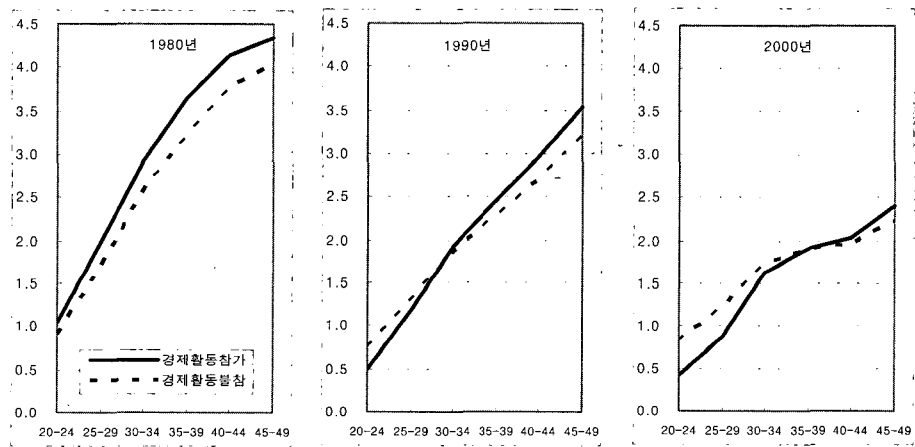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 중인 기혼여성의 출생아수가 비참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1980년 당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3.39명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기혼여성의 2.54명보다 0.85명이 더 많았다. 1990년 조사 결과 경제활동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아수는 공히 감소하였다. 경제활동 기혼여성의 출생아수(2.43명)는 비경제활동 여성(2.00명)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2000년에 이들 두 집단의 출생아수는 1.86명과 1.78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감소폭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혼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0.07명으로 감소하여 거의 유사하였다.

이상의 분석 내용은 경제활동 기혼여성이 비활동 여성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출산수준은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차이가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직종별로 차이가 있다.

우선 경제활동상태별 기혼여성의 연령구조를 2000년 전체 기혼여성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1980년과 1990년 결과에서는 경제활동 기혼여성의 출생아수가 비활동 기혼여성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다만, 2000년에 경제활동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비활동 기혼여성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경제활동여성 중 상당 부분이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연령층 중심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고출산 가능 직종(예를 들어, 농업직)의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참가 여부별 출생아수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

였다. 1980년의 경우 15~19세에서만 경제활동 기혼여성의 출생아수가 비활동 기혼여성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의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경제활동 기혼여성이 비활동 기혼여성에 비해 많았다. 당시 전 연령층에서의 여성취업 패턴이 출산 및 양육이 가능한 농업, 자영업 등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1990년에는 25~2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경제활동 기혼여성의 출생아수가 비활동 여성보다 적었다.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전히 경제활동 여성의 출생아수는 비활동 여성의 출생아수보다 많았다. 이 시기에 저연령층부터 기혼여성의 취업 직종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에는 기혼여성의 취업직종의 변화가 더 두드러짐을 추측할 수 있다. 40대 고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가임기에서 경제활동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비활동 여성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비활동 여성에 비해 20~24세에서는 절반 그리고 25~29세에서는 2/3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30~34세 연령층의 경우 경제활동 여성과 비활동 여성간의 차이는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경제활동 여성들이 25~29세 까지 억제하였던 출산(또는 결혼)을 30대 전반에 집중적으로 하여 일어난 이른바 캐치업(catch-up) 현상으로도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0대 고연령층에서는 여전히 경

제활동여성의 출생아수가 비경제활동 여성에 비해 많다. 고연령 경제활동 여성의 직종(예를 들어, 농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직업별 출생아수

기혼여성을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한 후, 이 중 경제활동 여성을 다시 직업별로 세분화하여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직업은 편의상 전문직, 준전문직, 입법 공무원과 고위직 및 관리직, 사무직을 함께 묶어, 전문·사무직으로 분류하였다.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은 서비스·판매·기능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외 농림어업직과 무직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평균 출생아수는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에게서 가장 적고, 다음으로 무직(비경제활동), 서비스·판매·기능직, 농어업직 종사 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기혼여성의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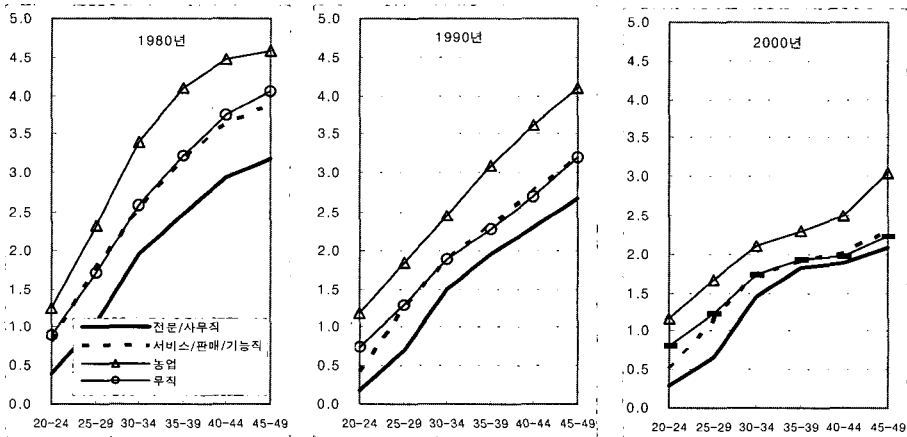
| 구분 |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 | | | | | 차이 | | |
|-----------|-------------|--------|------------|------|------|-------|-------|------|
| | 전국 | 전문·사무직 | 서비스·판매·기능직 | 농어업직 | 무직 | B-E | C-E | D-E |
| | A | B | C | D | E | F | G | H |
| [연령 비표준화] | | | | | | | | |
| 1980 | 2.85 | 1.86 | 2.93 | 3.80 | 2.54 | -0.68 | 0.39 | 1.26 |
| 1990 | 2.13 | 1.41 | 2.30 | 3.23 | 2.00 | -0.59 | 0.30 | 1.23 |
| 2000 | 1.81 | 1.47 | 1.94 | 2.58 | 1.78 | -0.31 | 0.15 | 0.79 |
| [연령 표준화] | | | | | | | | |
| 1980 | 3.22 | 2.34 | 3.00 | 3.80 | 3.08 | -0.74 | -0.08 | 0.72 |
| 1990 | 2.33 | 1.84 | 2.28 | 3.03 | 2.27 | -0.43 | 0.01 | 0.76 |
| 2000 | 1.81 | 1.60 | 1.82 | 2.31 | 1.82 | -0.22 | 0.01 | 0.49 |

주: 전문·사무직 - 전문직, 준전문직, 입법직, 사무직, 고위관리직 등,
서비스·판매·기능직 -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등, 농어업직 - 농림어업직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1.86명에서 2000년 1.47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약 0.4명이 감소한데 불과하였다. 서비스·판매·기능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동 기간 평균 출생아수는 2.93명

에서 1.94명으로 약 1.0명이 감소하였으며, 농업직 종사 기혼여성의 경우 3.80명에서 2.58명으로 약 1.2명이 감소하였다. 무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80년 2.54명에서 2000년 1.78명으로 0.8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전체 기혼여성의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직인 기혼여성의 출생아수가 연령 표준화 후에 증가하여 농어업직 기혼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여성들보다 많아졌다. 농업의 특성상 일과 양육이 병행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출산수준이 높다고 한다면, 기혼여성이 다른 직종에 취업할 경우 무직 여성에 비하여 출산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과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출생아수가 농업직, 무직, 서비스·판매·기능직, 전문·사무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무직과 서비스·판매·기능직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아주 미세할 뿐, 직종간 또는 직종과 무직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에 올수록 점차 좁혀지고 있다.



<그림 5> 기혼여성의 연령별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

과거 연도에서 직종과 큰 관계없이 출생아수는 연령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여 고연령층에서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출산이 이루어진 반면, 2000년에는 농업직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30~34세에서의 출생아수와 그 이후 연령층에서의 출생아수가 유사하였다. 비록 연령코호트는 다를지라도 이 시기의 출산이 30~34세에서 완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 연령별 출생아수는 전문·사무직의 경우 25~29세와 30~34세 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사무직 여성이 출산을 미루어오다가 30~34세에서 출산을 집중으로 하고 있는 catch-up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다른 직종들과 무직의 경우에는 이러한 catch-up 현상이 없거나 미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문·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출산력은 아주 낮았다. 주된 이유로는 자녀 출산 및 양육과 일의 양립 곤란, 자녀 출산 등으로 보다 큰 기회비용 상실, 강한 자아실현 욕구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전문·사무직 여성은 전체 기혼여성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전체 출산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무직 여성의 출산력이 전문직 종사여성보다 높지만 서비스·판매·기능직 기혼여성과 유사하고, 농어업직 종사 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들 여성의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출산력이 최근의 저출산 추이를 주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 여성이 과거의 경제활동에 참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출산·양육과 취업활동간의 양립 가능성 제고만으로 최근의 저출산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즉, 가치관 등 다른 저출산 원인들의 파악 및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서비스·판매·기능직이나 농업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출산력은 보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직종들이 일반적으로 비정규형태이므로 자녀 출산과 일의 양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의 급격한 출산력 감소는 다른 원인, 예를 들어 자녀양육 비용의 고가화나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주택임차형태별 출생아수

주거상태의 안정도와 출산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점유형태별 출생아수를 비교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령을 비표준화한 경우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자가) 기혼여성의 출생아수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여성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월세, 전세 순으로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점유형태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표 9> 참조).

월세나 전세는 아직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00년 전체 기혼여성의 연령구조를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

출생아수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자가 부인의 출생아수가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여성간의 출생아수 차이는 거의 사라졌으며 출생아수도 빠르게 감소하였다. 거주환경이 안정되는 경우 출산력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표 9〉 기혼여성의 주택임차형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 구 분 | 주택임차유형 | | | | | 차이 | |
|-----------|--------|------|------|------|------|-------|-------|
| | 전국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 전세-자가 | 월세-자가 |
| [연령 비표준화] | | | | | | | |
| 1980 | 2.85 | 3.28 | 2.27 | 2.16 | 2.61 | -1.01 | -1.12 |
| 1990 | 2.13 | 2.48 | 1.77 | 1.83 | 2.06 | -0.72 | -0.66 |
| 2000 | 1.81 | 1.98 | 1.59 | 1.68 | 1.75 | -0.39 | -0.30 |
| [연령 표준화] | | | | | | | |
| 1980 | 3.22 | 3.38 | 2.91 | 2.89 | 3.12 | -0.47 | -0.49 |
| 1990 | 2.33 | 2.46 | 2.16 | 2.18 | 2.34 | -0.30 | -0.28 |
| 2000 | 1.81 | 1.90 | 1.71 | 1.71 | 1.80 | -0.19 | -0.19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

IV. 출산력 영향요인

1. 개요

기혼여성의 인구 및 경제·사회적 특성별 출생아수 차이에 대한 분석은 한 변수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단변량분석이다. 그러나 어느 특정 변수가 독립적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 중 인구학적 변수는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대다수 사회경제적 변수는 인구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이미 많은 이론들(Siegel & Swanson, 2004; Weeks, 1999 등 참조)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여러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을 변동은 궁

극적으로 어느 특정한 요소보다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변수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변량분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로 현재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세대구성을 포함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변수로 거주지,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와 직업 및 주택임차형태를 포함하였다 (<표 10> 참조). 각 변수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는 출산이 가장 활발할 것이라고 간주되는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분석목적에 해당 변수의 변화로 인하여 출산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가구구성은 보편적이면서 출산감소가 활발한 2세대를 준거집단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고출산력 집단선정의 근거와 유사한 맥락이다.

<표 10>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

| 변 수 | 분 류 | 준거집단 |
|------------|--|--------|
| [인구학적 변수] | | |
| 현재연령 | 세 | |
| 혼인연령 |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15-24세 |
| 혼인상태 | 동거 유배우, 비동거 유배우, 이혼, 사별 | 동거 유배우 |
| 가구구성 |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 2세대 |
| [사회경제적 변수] | | |
| 거 주 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 농촌 |
| 교육정도 | 중학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 중학 이하 |
| 경제활동상태/직업 |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기능직, 농림어업직, 무직 | 무직 |
| 주택임유형태 | 전세, 월세, 자가(무상) | 자가(무상) |

일부 변수의 경우 출산수준과의 역 인과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출생아수 결정에 미치는 방향에만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현재 연령은 그 자체를 분석하기보다 주로 집단간 연령구조의 상이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초혼연령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모형 I)이며, 다른 하나는 초혼연령을 포함한 모형이다(모형 II). 이 분석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초혼연령 변동과 출산력 수준의 변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초혼연령이 조사된 연도는 1980년과 1990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형 I 은 1980년, 1990년 및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모형 II는 1980년과 1990년에 한해 적용되었다.

2. 회귀분석 결과

(1) 모형 I (초혼연령 미포함)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혼인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부인에 대해 비동거 유배우 부인, 이혼 여성 및 사별 여성 모두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유배우가 출생아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러한 형태의 부부관계가 현대생활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출생아수에 대한 이혼의 부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 경향이 출산을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뚜렷해 졌다. 다세대는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 양립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회귀분석 결과, 3세대와 4세대 (1980년 제외) 가구에서 2세대 가구에 비해 출생아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세대 가구의 증가는 출산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소 경향은 더욱 강해 졌다.

1980년, 1990년 및 2000년 공히 도시 거주자의 출생아수가 적었으며, 그 정도는 대도시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1980년에 도시와 농촌의 출생아수 차이가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정도도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1980년과 1990년에는 고졸수준이 출생아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2000년에는 대학이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에 교육정도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 출생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에 대한 취업 활동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은 직종 사이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문/사무직은 출생아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판매/서비스/생산직과 농어업직은 출생아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직업 중에서 농림어업직 여성이 출생아수를 늘려주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주거상태에서는 자가에 비해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전세 및 월세의 경우 출생아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표 11〉 인구학적 및 경제·사회적 요인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beta)

| 구분 | 모형 I | | | 모형 II | |
|--------------|------------|------------|------------|------------|------------|
| | 1980년 | 1990년 | 2000년 | 1980년 | 1990년 |
| [인구학적 특성] | | | | | |
| 현재연령 | 0.613 *** | 0.526 *** | 0.335 *** | 0.623 *** | 0.544 *** |
| 혼인상태(동거유배우) | | | | | |
| 비동거유배우 | -0.039 *** | -0.020 *** | -0.015 *** | -0.038 *** | -0.017 *** |
| 이혼 | -0.077 *** | -0.065 *** | -0.083 *** | -0.076 *** | -0.062 *** |
| 사별 | -0.049 *** | -0.010 *** | -0.007 *** | -0.054 *** | -0.015 *** |
| 가구구성(2세대) | | | | | |
| 1세대 | -0.175 *** | -0.231 *** | -0.360 *** | -0.170 *** | -0.214 *** |
| 3세대 | 0.002 ** | 0.007 *** | 0.008 *** | 0.004 *** | 0.010 *** |
| 4세대 | -0.005 *** | 0.002 * | 0.002 * | -0.004 *** | 0.002 ** |
| [경제·사회적 특성] | | | | | |
| 거주지(농촌) | | | | | |
| 대도시 | -0.084 *** | -0.098 *** | -0.093 *** | -0.080 *** | -0.092 *** |
| 중소도시 | -0.044 *** | -0.048 *** | -0.056 *** | -0.043 *** | -0.044 *** |
| 교육정도(중졸이하) | | | | | |
| 고졸 | -0.072 *** | -0.105 *** | -0.070 *** | -0.055 *** | -0.068 *** |
| 전문대 이상 | -0.050 *** | -0.097 *** | -0.105 *** | -0.032 *** | -0.053 *** |
| 경찰·직업(무직) | | | | | |
| 전문·사무 | -0.012 *** | -0.021 *** | -0.034 *** | -0.007 *** | -0.014 *** |
| 서비스·판매·기능 | 0.007 *** | 0.008 *** | 0.012 *** | 0.006 *** | -0.001 |
| 농림어업 | 0.090 *** | 0.086 *** | 0.074 *** | 0.085 *** | 0.077 *** |
| 주택점유형태(자가) | | | | | |
| 전세 | -0.023 *** | -0.021 *** | -0.044 *** | -0.018 *** | -0.009 *** |
| 월세 | -0.019 *** | -0.020 *** | -0.023 *** | -0.014 *** | -0.012 *** |
| 초혼연령(15-24세) | | | | | |
| 25-29세 | | | | -0.117 *** | -0.162 *** |
| 30-34세 | | | | -0.060 *** | -0.132 *** |
| 35-39세 | | | | -0.031 *** | -0.063 *** |
| 40세 이상 | | | | -0.012 *** | -0.032 *** |
| N | 751,232 | 759,961 | 821,260 | 751,232 | 759,961 |
| R-Square | 0.580 *** | 0.528 *** | 0.368 *** | 0.597 *** | 0.564 *** |

주 1) ()는 준거집단

2)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 II

초혼연령을 모형에 포함시킨 모형 II(1980년과 1990년만 적용)에서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는 감소하였다. 특히, 그 영향력은 25-29세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4세로 나타났다. 즉, 출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에서의 혼인 지연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II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모형 I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초혼연령 포함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1990년의 경우 약 4%포인트가 증가하였다.

V. 결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출산력 감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강한 소자녀 선호와 만혼 및 미혼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 여성의 취업증가,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의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별 차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차별출산력 분석을 위하여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족유형(가구구성)을 포함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기혼여성의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2000년 전국 기혼여성의 연령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출생아수를 표준화하여 특성별 출산수준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위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차별출산력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부인의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한 경우 가장 적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족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유배우 상태가 빠르게 감소하고, 1세대나 독신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는 앞으로의 출산수준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규모가 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중에 근무할 경우,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출산수준이 낮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1980년에 가장 컸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출산수준이 높은 농촌인구의 급감,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간 차이의 감소,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감소 등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변량분석기법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로 현재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구구성이며, 사회경제적 변수로 거주지,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와 직업 및 주택입차형태를 포함하였다. 각 변수의 준거집단으로 출산이 가장 활발할 것이라고 간주되는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앞에서 실시한 단변량분석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배우자와 동거하는 부인의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혼의 증가로 출산율이 낮아지며,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 도시 거주자의 증가,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부인의 증가 등이 출생아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혼부인의 직업에서 전문/사무직의 경우 출생아수가 적었으나 무직의 기혼여성의 출산수준도 판매/서비스/생산직의 여성과 유사한 수준의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 기혼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였으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수가 많은 집단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출생아수의 감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집단의 구성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 그 간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와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면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한 1980년 이후 빠른 출산력의 감소원인분석과 앞으로 출산력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현(1993), “저출산 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5a), 『출산력 저하의 원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_____ (2005b), “인구변동전망과 정책목표”, 『인구와 사회』 1: 1-25,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박경숙·김영혜(2005),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서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63-90, 2003.
- 이삼식·변용찬·김동희·김형석(2004),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고령화대비 협동연구 시리즈(04-02).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체계: 2000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통계청.
- _____ (2005a), 『인구동태통계』
- _____ (2005b),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 _____ (2005c),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_____ (각연도), 『인구동태통계』, KOSIS.
- _____ (각연도), 『인구동태통계』, 원자료.
- _____ (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 Atoh, Makato (1998), “Countries with substantially below-replacement fertility: the case of Japan.”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 Brewster, Karin L. and Ronald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 Choe, Minja Kim and Li Lei (1997), “Later Marriage or No Marriage: An Examination of Marriage Pattern in Korea Using A Mixture Model for Duration Data”,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27 October 1997, Beijing, China.
- Engelhardt, H., Kogel T. and A. Prskawetz (2004),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 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Population Studies* 58: 109-120.
- Siegel, Jacob S. and David A. Swanson (2004),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New York: Elsevier Academic Press.
- Weeks, John R. (199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7th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